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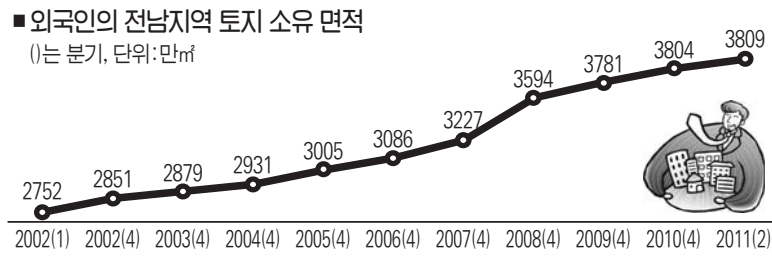
전남 외국인 소유 토지 3809만㎡ ... 10년새 급증

(▲문화화전당 82배 규모)

전체 토지의 16.8%, 경기 이어 2위 다문화 가정 늘어 토지 취득도 증가

최근 9년 사이에 여의도 면적의 3.6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82배 규모의 전남지역 토지가 외국인들 손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총 2억2652만㎡로, 전 국토의 0.2%를 차지했다. 보유 금액으로는 32조 4820억원(신고기준) 규모다. 이 중 전남지역 토지는 3809만

3000㎡로 전체의 16.8%를 차지, 외국인은 경기지역(4088만4000㎡, 18.0%)에 이어 전남지역 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면적도 최근 9년 사이에 38.4%인 1057만1000㎡가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290만㎡) 면적의 3.6배, 옛 전남도청에 들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12만8621㎡)의 82.2배에 달하는 규모다.



2002년 1분기 2752만2000㎡였던 외국인 토지 소유면적은 2005년 말 3000만㎡(3005만8000㎡)를 넘어섰고, 2008년 말 3594만8000㎡, 2009년 말 3791만5829㎡, 지난해 말 3804만4189㎡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늘면서 토지 소유면적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문화 가정의 주거형 아파트와 농경지 구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도 소유면적 증가에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외국인 토지 취

득 사례가 늘었고, 보성·고흥지역의 임야 구입으로 면적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토지 투기보다는 실제 토지를 이용하고자 취득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의 광주지역 토지 소유면적은 지난 2분기 332만6000㎡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분기 326만6000㎡에서 2002년말 319만㎡로 감소했다가 2004년말 324만㎡, 2006년말 345만㎡, 2007년말 347만㎡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2008년 329만㎡로 크게 줄었다가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말 331만㎡를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목욕용품선물세트 인기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러쉬(Lush)' 매장에서 추석예를 앞두고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성분의 목욕용품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세트구성이 가능해 실속형 선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현대차 전남본부의 최근 순천시 조례동에 순천시승센터를 개설, '365일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 순천시 '365일 찾아가는 시승서비스'

현대자동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광원)는 29일 순천시승센터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승차를 제공·반납하는 '365일 찾아가는 시승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담당직원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예약한 시승차를 제공하고 시승을 마치고 고객에게 차를 받아 반납하는 고객 맞춤형 시승 서비스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수입차에서도 하지 않은 파격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순천시승센터는 순천시 조례동 호수공원 옆 현대차 순천지점 1층에 마련됐다. 이 센터에는 그랜저 등 시승차 9대(엑센트·아반떼·벨로스터·쏘나타T-GDI·그랜저·제네시스·에쿠스·투싼ix·싼타페)을 보유하고 있다. 시승을 원하는 고객은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com)나 순천시승센터(061-725-7365)에서 예약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리금융 “광주銀 완전 자회사 편입”

주식 100% 취득 공시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주식 100%를 취득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이들 은행의 지분을 99.99%씩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를 위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1.4617117주(1만6225원), 1.9797297주의 비율로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배정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4일 오후 5시 현재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한한다. 주식배정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 주식교환일 현재의 종가로 계산한 금액을 그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와같이 우리은행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주식을 100% 취득한 것은 현행 관련법에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완전지배조건이 충족되면 연결합계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80% 이상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완전자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부터 100% 주식을 보유해야만 완전자회사로 인정받게 돼 자회사 주식교환이전 결정을 하게

됐다. 따라서 우리금융은 올 초 광주, 경남은행으로부터 총 874억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이 두 회사가 완전 자회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1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이번 완전편입으로 우리금융은 이 배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고속 무재해 1700일 달성

금호고속(대표이사 김성산)이 무재해 1700일(5배수)을 달성했다. 금호고속은 29일 지난 2006년 10월 24일 무재해 운동을 시작해 이날까지 4년10개월간 1771일째 무재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은 최근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5배수 인증을 받았다. 무재해 인증은 자동차여객운송업의 경우 340일동안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1배수 인증을 준다. 금호고속은 5배수 인증을 획득한 뒤 6배수 인증에 도전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기아차·현대모비스 납품업체에 추석자금 1조1500억원 푼다

현대차그룹이 납품업체에 1조1500억원 규모의 추석자금을 푼다. 현대차그룹은 29일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그룹 주요 3사가 추석예를 앞두고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800여 납품업체에게 1조1500억원의 구매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2·3차 업체들에게도 지원 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들에게 대금 조기 집행을 권고하고, 실질 지원 여부를 점검해 매년 실시하는 협력업체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명절 전 납품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설 명절 때에는 85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선 지급한 바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 1829.50 (+50.55)
코스닥지수 ▲ 483.27 (+9.96)
금리 (국고채 3년) ▲ 3.51% (+0.03)
원·달러 환율 ▼ 1074.00원 (-7.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금강제화 추석선물 아이템 다채 연령대·취향·기능별 선물 선택

금강제화가 추석예를 2주일 앞두고 다양한 추석선물 아이템을 선보였다. 연령대와 취향·스타일·기능별로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강상품권을 비롯해 슈즈·지갑 등 실용적인 아이템을 마련했다. 금강상품권은 슈즈뿐만 아니라 골프웨어, 아웃도어웨어, 신사복, 핸드백 및 지갑, 벨트, 액세서리 등에 이르기까지 30여 개의 다양한 패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명절 베스트 선물로 꼽힌다. 최근에는 이태리 감성의 핸드백 브랜드 '엘 브루노말리'와 '탈버랜드', '클락스', 노르웨이 아웃도어 브랜드 '헬리한선' 등 해외 유명 브

랜드도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5만~50만원까지 다양한 상품권을 전국 금강제화·랜드로바 및 백화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강제화는 또 중·장년 직장인 납성을 위한 최고급 클래식 슈즈인 '헤리티지 세븐'을 추천했다. 한국인의 발에 맞춘 편안함과 최고급 소재로 제작했으며, 정장화뿐 아니라 캐주얼에 어울리는 구두까지 7가지 디자인 중 선택할 수 있다. 효도 선물로는 신였을 때 가벼운 느낌을 주는 '키포트 슈즈'가 건강기능식품 못지않게 큰 인기다. 올 시즌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옥스포드 슈즈'도 선물 아이템으로 적합하다. 지갑은 큰 부담 없이 주고받기에 좋은 아이템이다. '브루노말리'의 지퍼가 들어간 '오리지널' 악어의 열색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이탈리아 악어 열보 소재를 사용해 그림감이 좋고, 카드나 동전 등 내부 수납구조가 잘려 있다. '쿠보백'은 넣는 내용물에 따라 가방 모양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형태로 출시 직후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 주춤·성장세 둔화

광주·전남지역 최근 경제가 담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는 주춤했고,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폭이 축소돼 성장세도 둔화됐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내놓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6월 중 제조업 생산은 광주지역에서 자동차 등의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전남지역 화학제품과 1차 금속 등의 부진으로 1.8%를 기록, 전당의 4.0%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또 6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가율도 0.0%로, 전당의 0.4%에서 줄어들었고 7월 중 수출도 광주지역 자동차 증가폭 축소와 전남지역 선박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36.8%→22.2%)됐다. 6월 중 광주·전남지역 소비자가는 전당의 4.6%에서 4.8%로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으나 아파트 매매가격(광주기준 +2.1%→+1.6%)과 전세가격(광주기준 +2.0%→+1.3%)은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나눔·섬김' 특강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형균 청장을 비롯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해 조응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나눔! 섬김! 감동주는 국제공무원'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조응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나눔·섬김·실천의 공직철학을 받고 올바른 국제공무원상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응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은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조금만 이해해 줘도 감동 받는다"며 "납세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청량리 다일공동체 밥과 명예본부장과 증중장인의 재물을 돕기 위한(사단법인)석성 일반회 이사장으로 활동중인 조응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더 많이 얻으려면 먼저 줘야 한다'는 나눔과 섬김의 인생철학을 역설한 뒤 이웃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국제 공무원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www.kimyoung.co.kr 개강 : 9월 1일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9월 1일